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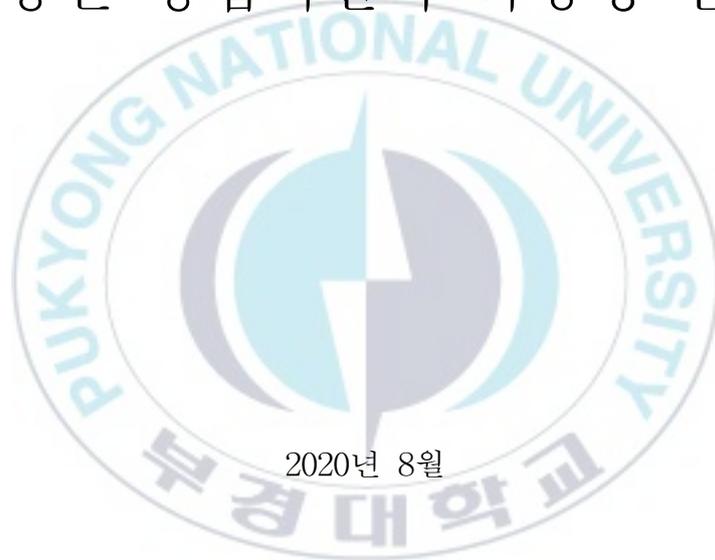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창업지원의 타당성 연구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김 내 희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

창업 성과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창업지원의 타당성 연구

지도 교수 옥영석

석사학위 논문에 준하는 보고서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경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기술경영학과

김 내 희

김 내 희 의 기술경영학 석사학위 프로젝트보고서를 인준함.

2020년 8월 일



위 원 장    경영학박사    손 재 학 (인)  
위    원    공학박사    최 승 욱 (인)  
위    원    공학박사    옥 영 석 (인)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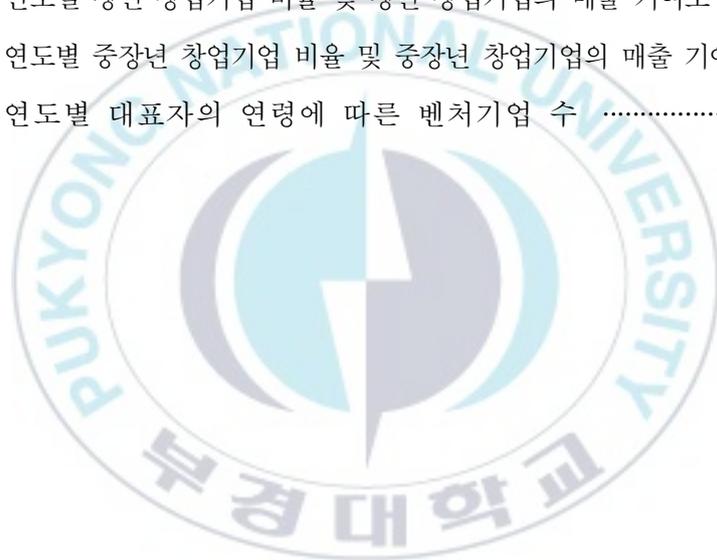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중장년의 정의 .....	5
2.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7
3. 중장년 대상의 창업지원 사업 .....	15
4. 창업 성과의 측정 방법 .....	19
III. 분석 결과 .....	20
1. 활용 통계자료 .....	20
2. 중장년 창업기업의 현황 및 생존율 .....	22
3.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 분석 .....	29
IV. 결론 및 시사점 .....	36
1. 결론 및 시사점 .....	36
2. 제언 .....	38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40
참고 문헌 .....	42
감사의 글 .....	44

## 표 목 차

<표 1-1> 연도별 신설법인 수 .....	1
<표 1-2> 연도별 창업투자 업체 수 및 투자금액 현황 .....	1
<표 1-3> 연도별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	3
<표 2-1>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대책 .....	8
<표 2-1>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 .....	9
<표 2-2> 창업 지원유형별 예산 규모 .....	10
<표 2-3> 창업기업의 혁신형 기업 현황 .....	11
<표 2-4> 국가별 유니콘 기업 추이 .....	12
<표 2-5> 부산지역의 창업지원기관 현황 및 주요 사업 .....	14
<표 2-6> 연도별 창업지원 사업 신청하여 지원받은 기업 수 .....	16
<표 2-7>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별·연령별 수혜 현황 .....	17
<표 3-1> 창업기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활용통계 현황 .....	21
<표 3-2> OECD 주요국의 창업률 .....	23
<표 3-3>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 .....	23
<표 3-4>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현황 .....	24
<표 3-5> 대표자 성·연령별 기업생멸 현황 .....	24
<표 3-6> 창업기업의 업력별 창업자 연령 .....	25
<표 3-7> 연령별 신설 법인 수 .....	26
<표 3-8> 연령별·산업별 신설법인 수 .....	28
<표 3-9> 연도별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비율 및 고용창출 기여도 .....	29
<표 3-10> 업력별 창업기업 인력구성 .....	31
<표 3-11> 연도별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재무적 성과 .....	32
<표 3-12> 연도별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비율 및 매출 기여도 .....	32
<표 3-13> 연도별 벤처기업 중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비율 .....	34

##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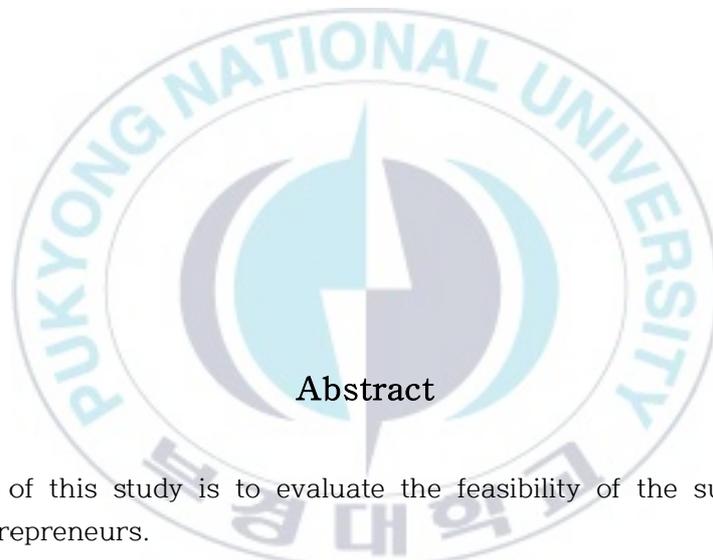
<그림 1-1> 생산연령인구 추계, 1960-2067년 .....	2
<그림 1-2> 고령인구 추계, 2017-2067년 .....	2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단계별 지원 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 .....	9
<그림 3-1> 활동기업 중 법인기업의 비율 및 종사자 수 .....	25
<그림 3-2> 조직형태별 기업의 1~5년 생존율 추이 .....	25
<그림 3-3> 연도별 청년 창업기업 비율 및 청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추이 .....	29
<그림 3-4> 연도별 중장년 창업기업 비율 및 중장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추이 .....	29
<그림 3-5> 연도별 청년 창업기업 비율 및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추이 .....	31
<그림 3-6> 연도별 중장년 창업기업 비율 및 중장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추이 .....	31
<그림 3-7> 연도별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벤처기업 수 .....	33



# A Feasibility Study of Senior Entrepreneurs Support Focused on Performance

Nae Hee Kim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e support program for senior entrepreneurs.

The startup performance of senior was analyzed by the statistical data about the startup of government agencies. The performance of job creation, sales, and innovation company by senior entrepreneurs was greater than that of young entrepreneurs. Despite the high demand for senior startup and high survival rates of senior startup, the support policy for entrepreneurs is focused on young entrepreneurs.

A policy for senior entrepreneurs startup is presented to prepare for an aging society,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upport program. A policy for senior entrepreneurs startup will enable to support a good job for old age, and the job problem of young people will also be solved by discovering and fostering excellent senior entrepreneurs.

Key words: senior entrepreneurs, entrepreneurs support policy, start-up support policy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예산규모는 1조 4,517억 원으로 전년(1조 1,181억 원)대비 3,336억 원(29.8%) 증가했다. <표 1-1>과 같이 '18년 신설법인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하였고, <표 1-2>와 같이 '18년 신규 벤처투자 금액도 3.4조원으로 최고 수준 달성하였다. 신설법인 수, 벤처기업 수 등 양적 지표들은 지속적 상승 추세에 있으나, 창업기업의 생존율 및 혁신형 기업 수와 같은 질적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표 1-1> 연도별 신설법인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설법인 수 (단위 : 개)	93,768	96,155	98,330	102,042	108,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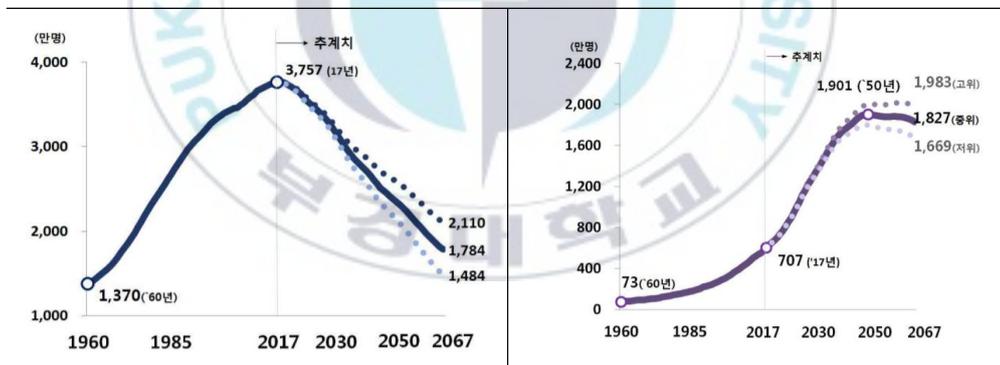
주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통계DB를 재구성함

<표 1-2> 연도별 창업투자 업체 수 및 투자금액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투자 업체 수 (단위 : 개)	901	1,045	1,191	1,266	1,399
투자금액 (단위 : 억 원)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주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통계DB를 재구성함

우리 사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 통계청의 1)장래인구추계(2017)에 따르면 <그림 1-1>과 같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7년 3,757만 명에서 2030년 3,395만 명으로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더욱 감소하여 2017년의 47.5%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그림 1-2>과 같이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를 초과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7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1-1> 생산연령인구 추계, 1960~2067년

<그림 1-2> 고령인구 추계, 1960~2067년

주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 보도자료

1) 5년 주기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로써 당초 2021년에 공표 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2017년 특별추계를 공표하였다.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2018년까지의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 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임

또한, 퇴직연령의 2)고령자가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고령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1-3>과 같이 생산연령인구 내 고령자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1-3> 연도별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연령인구(명) (15~64세)	43,293	43,606	43,931	36,796	36,791
생산연령인구 내 고령자 비중(%)	15.4	16.3	16.8	20.9	21.5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67.9	68.1	69.1	68.8	68.9

주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자 경제활동 동향 결과를 재구성함

위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2019년 「인구정책TF」 구성하여 중장년 퇴직인력의 경력, 전문성,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지원(시제품 제작, 비즈니스모델(BM) 기획, 지식재산권(IP) 창출 컨설팅 등)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2019년 11월에 발표하고, 중장년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3)양코르크리어 준비하는 모든 중장년에게 있어서 창업이 대안일 수는 없지만 더욱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점에서 창업을 선택하는 중장년이 더욱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여 원만하게 제 2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령자의 기준은 55세 ~ 64세(OECD기준)임  
 3) 시니어를 위한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시빅 벤처스(Civic Ventures)’의 설립자, 마크 프리드먼이 쓴 책 《양코르크》에서 소개된 개념으로 ‘양코르크 커리어(Encore Career)’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인생 후반기의 일자리를 뜻함

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전의 어떤 정부보다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창업지원 사업이 성과가 잘 도출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사업이 충분한지를 진단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과 성과에 관련된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중장년의 창업 현황과 창업 성과를 살펴보고, 중장년 창업지원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중장년 창업지원의 타당성을 연구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의 창업 유형의 현황과 창업지원 제도 및 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먼저 II장에서는 중장년의 정의와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과 대표적인 중장년 창업지원 제도 및 창업지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이어 III장에서는 통계자료에 나타난 중장년 창업의 현황과 창업 성과를 창업기업 생존율, 고용창출, 매출 등의 재무적 성과, 혁신형 기업 배출 성과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기업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IV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중장년의 정의

2015년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서는 생애주기를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 등 5단계로 구분했다. 국내에서 통계청이 고용률·실업률을 집계하는 청년의 연령대는 만 15~29세이다. 또한, 청년의 범위는 정부의 정책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연령대는 만 15~29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는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인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는 주로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보고 있다. 때로는 아래와 같이 장년이나 신(新)중년으로도 부르는데 그 연령 기준이 청년의 범위처럼 정책별·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중장년은 만 35~69세를 의미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4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본다. 같은 부처의 '신(新) 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사업'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장년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서울뿐 만 아니라 대전, 충남, 부산, 경기도 등에서 중장년의 인생이모작·삼모작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중 서울시에서 제정한 2015년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서울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을 세 곳의 캠퍼스와 여섯 곳의 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장년 지원 정책 수혜 대상을 '50+' 즉, 50세 이상으로 정

확히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정부가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탄생한 5060세대를 지칭하는 ‘신(新)중년’이라는 용어는 주된 일자리에서 50세를 전후로 퇴직해서,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이처럼 정책마다 청년 및 중장년의 연령대를 달리 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의 연령대가 정책마다 다르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중장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남순(2009)은 40~59세 시기를 중년기로 보고 가족생활주기, 개인적 발달, 사회적 관점으로 중장년을 정의하고 있다. 노부모와 자녀의 중간에 위치하며 자녀양육의 역할이 감소하는 세대로, 신체적·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노화가 진행이 시작하며 본질적 자아 성찰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세대 간 난관 극복과 대인관계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절정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음은 인지하는 시기로 설명하고 있다. Zunker(2002)는 중장년이 반드시 나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진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일생동안 몇 번의 중장년 진로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가열 외, 2009).

연구자마다 중장년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점차 연장되고, 퇴직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어 중장년기가 길어지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49.4세로 퇴직이 40대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5~79세의 고령 인구 1,384만3천 명 가운데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4.9%이고, 현재 취업자의 92.1%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 인구 중에서는 평균적으로 73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러한 희망 근로 상한 연령 또한 늘어나고 있어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퇴직 시기가 빨라지고,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준비를 위한 근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어 중장년의 연령에 대한 기준은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중장년은 창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 청년창업자의 범위를 39세 이하의 창업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중장년의 범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만 40세 이상인 자로 설정하고자 한다.

## 2.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2.1. 창업지원사업의 현황

문재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왔다. 정부에서는 <표 2-1>과 같이 창업과 신산업의 혁신 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2018년 3월,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창업경험이 전무하고,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에게 1억 원 한도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4)사업을 시작했으며 2018년 5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분 조성방안’을 발표하여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

4) 최초 기술혁신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었으나 현재 사업명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

추진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창업지원 사업의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창업활성화와 관련된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대책

구분	일자리 대책명	주요내용
1차 (2017.6)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	● 실효성 높은 창업지원 등
2차 (2017.8)	新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기술창업지원 확대
5차 (2018.3.15.)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중기부)	● 혁신 창업자 발굴부터 성장까지 지원 ● 생활형 아이디어 및 소셜벤처 창업 촉진 ● 창업부담 완화 및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6차 (2018.5.16.)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중기부)	●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 창업사업화 및 투자 등 특화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북 조성방안 (중기부)	● 국민적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 제안형 창업지원 사업 도입 ● 유니콘기업 육성 프로젝트(100개사 발굴) 도입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 SW중심 커뮤니티형 창업마을 조성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 창업공간 및 지역 일지리기반 조성 (도시재생 창원지원)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산업부)	● 글로벌 뿌리기업 육성(글로벌 중견기업 40개사 목표, 기술개발 및 마케팅, 글로벌기업 납품 등 지원)
7차 (2018.9.11.)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복지부)	● 바이오헬스 벤처 창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과기부)	●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창업·성장거점 마련, SW 고성장기업 100개 육성 등)
	지식재산(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대책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기반 혁신성장 촉진(투자 펀드 조성)

주 : 2017~2019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공고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의 창업지원 규

모는 2017년 6,158억 원, 2018년 7,796억 원, 2019년 11,180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창업지원 정책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안승구, 2016). <표 2-2>과 같이 창업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2> 부처별 창업지원 예산규모(단위 : 억 원, %)

구분	중기부	행안부	고용부	과기 정통부	문체부	특허청 등	합계
예산	9,975.6	362.2	280.6	152.4	116.6	293.4	11,180.8
비중	89.2	3.2	2.5	1.4	1.0	2.7	100

주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표 2-3> 창업 지원유형별 예산 규모(단위 : 억 원, %)

구분	사업화	연구개발	시설·공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합계
예산	5,130.7	3,797.0	1,493.8	471.0	221.8	66.5	11,180.8
비중	45.9	33.9	13.4	4.2	2.0	0.6	100

주 :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위의 <표 2-3>에서 지원유형별 예산규모는 창업사업화(50.4%), 연구개발(35.3%), 시설·공간제공(8.7%), 창업교육(3.7%), 멘토링(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은 2019년 5,131억 원에서 2020년 2,184억 원이 증액된 7,315억 원을 차지할 만큼 중점적으로 지원된다.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단계별 지원 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

주 : 2020년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창업지원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화 지원은 <그림 2-1>와 같이 창업단계별 예비, 설립(1년 이내), 창업초기(1~3년), 성장기(3~7년), 재도전 단계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다. 창업단계별 예산 투입 비중은 약 78%가 예비창업자와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창업지원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업력 3년 차에 도산하는 기업이 많은 점을 파악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다.

## 2.2. 창업지원 사업의 문제점

<표 2-4> 창업기업의 혁신형 기업 현황(단위 : N, %)

구분	전체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해당사항 없음
기업수	2,030,987	0.9	0.1	0.1	99.0

주 : 창업진흥원, 2018년도 기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한국의 창업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국가의 창업 유형과 비교하여 볼 때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기술기반의 창업 성장 속도는 더딘 편이다. 기술기반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표 2-4>와 같이 2018년 기준 창업기업 중 혁신형 창업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99.01%로 나타났고, 혁신형 기업 중 벤처기업은 0.91% 이노비즈 기업은 0.08%, 경영혁신형 기업은 0.05%로 나타났다. 또한,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 수는 전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1위 미국의 113개사, 2위 중국 59개사와의 차이가 많다.

<표 2-5> 국가별 유니콘 기업 추이

구분	'17.12월	'18.8월	'18.12월	'19.12월
1위	미국 (113개사)	미국 (119개사)	미국 (144개사)	미국 (210개사)
2위	중국 (59개사)	중국 (76개사)	중국 (81개사)	중국 (102개사)
3위	영국 (13개사)	영국 (15개사)	인도, 영국 (14개사)	영국 (22개사)
4위	인도 (10개사)	인도 (11개사)		인도 (18개사)
5위	독일 (3개사)	독일 (5개사)	독일 (7개사)	독일, 한국 (11개사)
6위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 8개국 (2개사)	이스라엘 (4개사)	한국 (6개사)	
7위		한국 (3개사)	이스라엘 (4개사)	이스라엘, 브라질 (6개사)
계	224개사	255개사	295개사	426개사

주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내 2019.12.10.자 보도 자료를 재구성함

우리나라는 창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정부 부처, 지자체, 대학, 민간 기업 등이 창업 보육 및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창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해오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5)‘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에 창업보육센터는 260개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6)액셀러레이터도 2020년 5월 기준 242개사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만 살펴봐도 <표 2-6>와 같이 여러 유관 기관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기 단계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창업

5)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bi.go.kr)로 전국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6) 창업기획자(이사,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음

단계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도약 프로그램, 민간과 정부가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 등 기존의 창업지원 사업에서 더욱 고도화된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2-6> 부산지역의 창업지원 기관 및 주요 사업 현황

기관명	지원사업	주요기능	주요사업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지원센터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패키지 사업화 지원	(예비)기술창업 100개 업체 보육
	창업카페	송상현광장점	상담, 컨설팅, 세미나, 교육
		부경대대연점	대학가 주변 청년 창업지원
		사상역점	ICT 융합 의료기기 제품개발 사업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및 성장지원	창업교육,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부산테크노파크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	TIPS 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팅 및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15개소	기술창업 거점 강화 (대학 12, 연구원 2, 여성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보육공간 및 컨설팅, 입주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부산이노비즈센터		POST-BI	지역특화 사업관련 유망기술 보유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 유망기업에 공간 제공, 컨설팅, 입주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VR·AR, 문화콘텐츠, IT 분야 창업 지원	지역 SW서비스사업화 지원, 부산문화콘텐츠 스타 프로젝트 운영,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사업 등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 디자인산업 분야 창업 지원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부산 패션창작 스튜디오 운영,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지역단위 인재육성 지원	메이커 문화 활성화 사업, 메이커 스튜디오 운영, 부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국방벤처센터		중소벤처기업 방산분야육성지원	군사업화 전문기술분야별 교육·컨설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부산관광공사		지역 관광사업 특화 분야창업 지원	관광벤처 공모전, 창업교육, 관광기업 협의체 운영 등

주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인터넷)

한편으로는 여러 부처 및 지원기관이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창업지원 사업이 복잡하고,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조체제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성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자 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많은 창업지원기관들이 공급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양현봉, 2018)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기초하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함(고혁진, 2019)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청년중심의 중점 창업지원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청년고용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단기 프로젝트 방식으로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2019년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보조금은 창업 사업화자금(2019년 5,131억 원)과 연구개발(R&D) 자금인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2019년 3,733억 원)으로 위와 같은 정부지원 자금 중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만 신청가능한 자금의 비중은 23.6% 수준(총 8,864억 원 중 2,094억 원)이다. 또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자금은 총 2조 800억 원 규모이며, 이중 2.6%에 해당하는 만 39세 미만 창업가에게 연 2.0%의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인 ‘청년전용자금’도 있다. 조세지원 정책이긴 하나 만 35세 미만 청년 사업자에게는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법인세의 50%, 그 외 지역에선 법인세의 10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2차 추경으로 편성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이 공고되기 전까지 중장년만을 대상으로 한 창업 사업화 자금은 전무하였다. 중장년은 창업지원 사업의 공급 측면에서는 외면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여러 부처들에서 각 부처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업은 국가의 중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만큼 정책적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 없는 성장’의 기조 속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청년 실업 문제는 가중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창업이 고려되었으므로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이에 청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창업지원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중장년 대상의 창업지원 사업

<표 2-7>와 같이 2016년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사업에 선정된 30대 이하 창업자 비율은 37.7%인 것에 비해 중장년의 비율은 22.1%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도는 그 차이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2-7> 연도별 창업지원 사업 신청하여 지원받은 기업 수(단위 : N,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비율		12.0	12.5	13.1
창업자 연령	20대 이하	24.8	21.5	14.9
	30대	12.9	10.7	14.9
	40대	14.8	13.1	14.4
	50대	11.5	13.5	13.3
	60대 이상	5.6	10.6	8.4

주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표 2-8>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별·연령별 수혜 현황(단위 : N, %)

구분	전체	창업 교육	시설 공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정책 자금	R&D 지원	판로·마케팅 글로벌	창업 행사·네트 워크	
전체	265,259	9.7	3.2	2.7	2.3	86.9	3.8	1.0	0.8	
창업자 연령	20대 이하	4,167	2.7	4.4	1.6	1.6	94.5	27.2	1.6	1.6
	30대	43,457	14.0	0.1	2.0	1.6	87.2	2.1	0.7	0.5
	40대	96,266	8.3	1.6	4.1	1.0	87.7	5.6	0.6	1.2
	50대	90,703	8.9	6.0	2.1	4.6	84.4	2.7	1.8	0.4
	60대 이상	30,666	11.1	3.8	1.3	0.7	89.7	0.5	0.0	0.8

주 : 창업진흥원, 2018년도 기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표 2-8>를 살펴보면 청년과 중장년의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 유형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받은 창업지원 사업의 유형으로는 정책 자금이 가장 높은 86.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창업교육 9.7%, R&D지원 3.8%, 시설공간 3.2%, 멘토링·컨설팅 2.7%, 사업화 지원 2.3%, 판로·마케팅·해외진출 1.0%, 창업행사·네트워크 0.8% 순으로 나타났다. 자본력이 부

족한 청년에서 정책 자금에 대한 수요가 평균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중장년은 사업화 지원과 시설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중장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화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화 지원 유형에 해당되는 ‘예비창업패키지 중장년 트랙’이 있다. 창업아이템 시제품 개발, 지적권 출원 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하다. 2019년 추경(318억 원)으로 신설하여 500명으로 선발하였고, 2020년에는 440명을 선발하였다.

또한, 시설·공간 지원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는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가 있다. 전국 27개 주관기관(‘20년, 44.6억 원)을 선정하여 만 40세 이상 기술창업 분야의 (예비)창업자 및 (예비)퇴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실전창업 교육 및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한다. 이 제도는 중장년 창업자들에게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 창업자들이 서로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의 창업 멘토링과 네트워크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제공형 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중장년 대상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40+ 중장년 창업스쿨’, 전라북도 경제통상연구원의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등 지역민의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주목할 만 가장 지자체의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프로그램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50세 이상의 장년층 일자리를 확장하

고자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함으로 앙코르커리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광역단위에 12개 센터와 업종별 센터 1개를 운영 중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중장년을 위한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부터 퇴직예정인 중장년을 위한 전직 스쿨 프로그램, 구직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도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재도약 프로그램에서 퇴직이후 경력목표에 따라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청년의 아이디어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의 노하우를 결합한 창업팀을 지원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과 선도벤처기업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경영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최근 폐지가 되었고,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2020년도부터는 초기창업패키지로 통·폐합되었다. 청년과 중장년, 선배 창업자를 연결하는 정책적 접근이 좋은 사업이었지만 우수 사례를 많이 발굴하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고혁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창업지원 사업의 연령별 수급분석 결과,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각각 5.9%와 9.3%의 초과공급이 나타나고 있지만, 50대는 -12.0%, 60대의 경우는 -5.4% 음의 초과공급이 나타난다고 한다. 창업 시장에 있어 수급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연령별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앞서 창업지원 사업에서 중장년 창업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중장년의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율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대표적인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즉,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중장년이 앞으로 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차지할 비중을 고려한 체계적인 중장년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창업 성과의 측정방법

창업기업의 성과측정에 사용된 지표들이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재무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반면 Covin & Slevin(1991)은 창업기업의 경우 객관적인 재무적 성과지표보다는 기업가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성과지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artner(1985)의 연구에서는 성과 측정에 객관적인 수치와 주관적인 지표의 두 가지를 활용하였고, Vesper(1980)는 연구에서는 다차원적으로 재무적 지표(ROE, ROS, ROI), 비재무적 지표(제품 혁신, 성장률, 시장점유율), 주관적 지표(사회적 책임, 근로생활 질, 만족도)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Chandler & Hanks(1994)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 관점으로 매출증가액, 투자수익률, 수익성, 시장점유율, 생산성 등을 보고 있고, Dess & Robinson(1984)의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성과측정 방법이 보다 실제적인 측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재무적 성과 지표로 고용률, 창업 만족도 등도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안태욱 외, 2019). Naffziger(1994)는 창업과정은 창업 시작단계의 의사결정과정과 함께 창업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한다(신유섭, 2013). 이 외에도 다수의 창업 성과와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재무 지표 이외에 인지된 시장 확보, 기술 확보, 자금 확보, 인적자원 확보, 직무 성과, 만족도 등을 주관적 지표를 추가로 사용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창업성가로 사용되는 지표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창업 성과의 기본이 되는 고용창출, 매출 등의 재무적 성과, 혁신형 기업 매출 성과를 중점적으로 청년 창업기업과 비교하여 중장년 창업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Ⅲ. 분석 결과

#### 1. 활용 통계자료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창업정책의 효과가 잘 도출되고 있는지 그 간의 성과를 진단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어 왔다. 창업지원 사업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 사업의 공급 편향성과 수요 대비 중장년 창업지원 사업의 부족에 대해 살펴보았다.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창업지원 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시계열 통계자료가 미흡하고, 창업지원 미 수혜기업과의 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표 3-1> 창업기업의 성과 분석을 위한 활용통계 현황

통계명	기관	조사 개요	조사 대상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조사는 창업기업의 창업준비, 창업실행, 창업성장 활동에 대한 현황 및 특성 파악을 통해 창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이외의 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로서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018년 창업지원 기업 이력·성과 조사	창업진흥원	'09~'17년 창업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특성조사를 통해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성·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함	창업지원기업의 '일반현황', '생존현황', '기업공개현황', '고용성과', '재무성과', '혁신성과', '성공사례 발굴' 등 8개 부문을 작성
기업생멸 행정조사	통계청	각종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신생, 소멸, (고)성장, 생존율 등을 작성	영리기업 중 당해 연도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

주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인터넷), 통계청 기업생멸행정조사(2019) 보도자료

따라서 본 장에서는 <표 3-1>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현황과 창업 성과에 관련된 통계자료 중 활용 가능한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와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창업 성과의 기본 측정 기준이 되는 청년과 중장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고용 창출 성과, 재무적 성과, 혁신형 기업 배출 성과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청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 2. 중장년 창업기업의 현황 및 생존율

조덕희(2018)는 우리나라의 현재 창업 생태계를 극심한 다산다사형이라고 하였다. <표 3-2>를 보면, 한국의 창업률은 2007년 17.9%에서 2013년 13.9%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 14.7%로 다시 증가했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들에서도 2000년대 이후 창업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창업률은 15.2%로, 프랑스(9.8%), 독일(6.7%), 스페인(10.0%), 이탈리아(7.7%)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OECD가 발간하는 보고서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at a Glance)'의 2017년 통계자료를 보면 스웨덴과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창업기업 3년 생존율은 각각 75.2%, 60.4%, 54.4%, 52.6%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창업기업 5년 생존율도 각각 62.6%, 50%, 52.6%, 5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표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은 42.5%, 5년 생존율은 29.2%로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수준에 속한다.

<표 3-2> OECD 주요국의 창업률(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독일	-	9.3	8.3	8.7	8.7	8.0	7.4	7.2	7.1	6.7	6.8
이탈리아	-	7.1	7.2	6.7	6.7	7.0	7.1	7.1	7.3	7.7	7.2
스페인	-	7.5	7.2	7.8	8.0	8.2	8.4	9.8	9.2	10.0	9.1
프랑스	-	9.7	13.0	12.8	11.0	10.1	9.5	9.9	9.4	9.8	10.0
영국	-	13.0	10.1	10.5	11.6	11.8	14.7	14.3	14.8	15.1	13.6
한국	17.9	16.2	15.1	15.0	15.3	14.3	13.9	15.2	14.6	15.2	15.1

주 : 통계청, 2018년도 기준의 「기업생멸행정통계」

<표 3-3> 기준 연도별 신생기업 생존율(단위: %)

연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2013년	(2012년)	60.1	(2011년)	47.3	(2010년)	38.2	(2009년)	32.2	(2008년)	29.0
2014년	(2013년)	62.4	(2012년)	47.5	(2011년)	38.8	(2010년)	31.9	(2009년)	27.3
2015년	(2014년)	62.7	(2013년)	49.5	(2012년)	39.1	(2011년)	32.8	(2010년)	27.5
2016년	(2015년)	65.3	(2014년)	50.7	(2013년)	41.5	(2012년)	33.5	(2011년)	28.5
2017년	(2016년)	65.0	(2015년)	52.8	(2014년)	42.5	(2013년)	35.6	(2012년)	29.2

주 : 통계청, 2018년도 기준의 「기업생멸행정통계」 결과 보도자료

\* ( )는 기업의 신생연도임

이처럼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는 창업은 매우 활발하지만, 창업기업이 오래 생존하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수가 폐업하는 극심한 다산다사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극심한 다산다사형 창업 생태계는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희소한 창업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이다(조덕희, 2019).

<표 3-4>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현황(단위: N, %)

구분	전체	청년 대표자 구성비		중장년 대표자 구성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창업기업 수	2,030,987	1.4	14.3	32.9	33.5	17.9
		<b>15.7</b>		<b>84.3</b>		

주 : 창업진흥원, 2018년도 기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재구성함

이러한 창업 생태계에서 중장년의 창업 현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먼저 중장년의 창업률을 살펴보면 <표 3-4>과 같이 창업자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높은 33.5%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40대 32.9%, 60대 이상 17.9%, 30대

14.3%, 20대 이하 1.4% 순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의 창업자가 84.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5> 대표자 성·연령별 기업생멸 현황(단위: 천개, %)

대표자 연령	활동기업				신생기업			
	2017년	2018년	전년비	구성비	2017년	2018년	전년비	구성비
전 체	6,051	6,250	3.3	100.0	913	920	0.7	100
20대 미만	186	197	6.0	3.2	77	79	3.1	8.6
30대	843	852	1.1	13.6	209	205	-2.0	22.3
40대	1,701	1,685	-0.9	27.0	271	266	-1.7	28.9
50대	1,917	1,987	3.7	31.8	228	235	2.9	25.5
60대 이상	1,398	1,522	8.9	24.4	128	134	4.8	14.5

주 : 통계청, 2018년 기준의 「기업생멸행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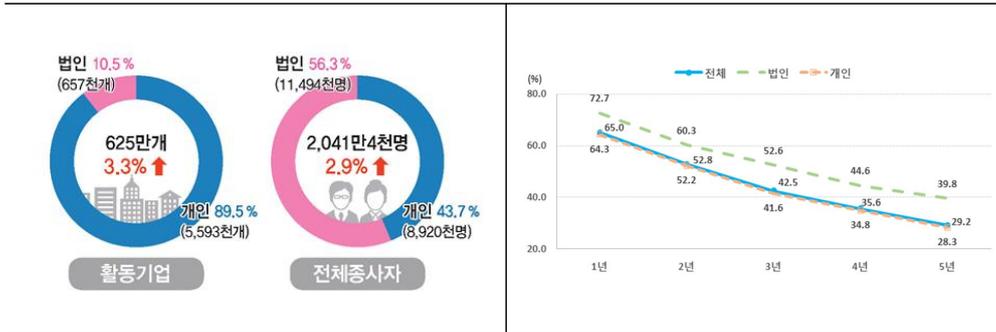
또한, <표 3-5>에서 활동기업의 대표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표자가 60대 이상 기업이 전년대비 가장 높은 8.9%의 증가율을 보이며, 40~50대인 기업이 전체의 58.8%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40~50대인 것이다. 이렇듯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앙코르커리어를 창업으로 실현하려는 중장년의 창업 수요는 앞으로 증가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표 3-6> 창업기업의 업력별 창업자 연령(단위 : N, %)

구분	전체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2,030,987	1.4	14.3	32.9	33.5	17.9	
업력	1년	494,475	2.4	17.4	32.0	31.2	17.0
	2년	418,040	1.4	16.6	32.3	32.8	16.9
	3년	324,061	1.2	15.2	37.0	29.8	16.8
	4년	256,614	0.6	13.6	36.3	33.3	16.3
	5년	206,309	1.0	9.9	32.5	36.2	20.4
	6년	178,960	0.7	10.2	31.8	38.7	18.6
	7년	152,528	0.8	8.4	24.8	41.5	24.4

주 : 창업진흥원, 2018년도 기준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장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력별 창업자의 연령 분포에서 1년차, 3년차, 4년차 기업은 창업자 연령이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년차와 5~7년차 기업은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력 1년차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19.8%로 나타났지만 7년차에는 9.2%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업력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중장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청년 창업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청년 창업기업의 증가세가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3-1> 활동기업 중 법인기업의 비율 및 종사자 수      <그림 3-2> 조직형태별 기업의 1~5년 생존율 추이

주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9) 보도자료 일부 발췌

<표 3-7> 연령별 신설 법인 수(단위 : N)

구분	청년(39세 이하)			중장년(40세 이상)			소계	
	30세 미만	30대	소계	40대	50대	60대 이상		
신설 법인	2018년	6,837	21,605	28,442	35,342	27,052	10,962	73,356
	2019년	7,480	22,929	30,409	37,164	28,560	12,471	78,195
전년 동기 대비 증감	643	1,324	1,967	1,822	1,508	1,509		4,839

주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의 신설법인 수를 재구성함

<그림 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2019)에 따르면 활동기업의 10.5%가 법인기업이지만 법인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의 고용 성과가 우수하고, 고용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림 3-2>와 보는 것과 같이 연도별 생존율을 보아도 개인기업보다 법인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평균을 10% 내외 높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신설 법인 설립 비율은 <표 3-7>와 같이 2019년 신설법인 중 72%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증감 정도가 청년보다 2.5배 높다. 즉, 중장년 창업기업이 청년 창업기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 기업을 설립하는 비중이 중장년 창업기업에서 높고, 따라서 고용 성과와 생존율이 높게 나타난다.

중장년의 높은 창업률은 통계청의 7)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2019)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410만 2540개로 1년 전보다 8만 2668개(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표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는 92만 7,194개로 전년 대비 5만 5,574개(6.4%) 늘었다. 이는 1년간 늘어난 총 사업체 수의 약 67%에 해당한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후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60대 이상 창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대표자의 연령대별 사업체 수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대는 50대로, 전체 사업체의 34.5%(141만7253개)였다. 이에 반하여 20대 이하가 대표인 사업체는 2017년 10.6%(9765개) 늘었지만 2019년에는 2.2%(2215개) 증가에 그쳤다. 30대가 대표인 사업체는 2017년 0.8%(4029개)에 이어 2019년에도 0.8%(4257개) 증가에 머물렀다.

---

7) 전국의 지역별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다른 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임. 매년 1회 실시하며 조사대상기간은 1월1일~12월31일이다.

<표 3-8> 연령별·산업별 신설법인 수(단위 : N)

구분	청년(39세 이하)			증장년(4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계	
2018년	전체	6,837	21,605	28,442	35,342	27,052	10,962	73,356
	제조업	1,004	3,730	4,734	6,581	5,623	2,016	14,220
	서비스업	5,068	15,441	20,509	23,154	15,861	6,339	45,354
2019년	전체	7,480	22,929	30,409	37,164	28,560	12,471	78,195
	제조업	1,069	3,556	4,625	6,670	5,898	2,354	14,922
	서비스업	5,802	17,354	23,156	25,413	17,512	7,534	50,459

주 : 중소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의 산업별·연령별 신설법인 수를 재구성함

그리고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청년 창업기업은 설비투자과 같은 초기 투자에 비교적 적게드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2019년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76.1%, 40대 이상 증장년은 64.5%가 서비스 분야에서 신설법인으로 창업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창업 희망업종을 묻는 질문에 요식업 응답 비중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렇듯 청년 창업자가 저부가가치 생계형 창업 의향이 높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극심한 다산다사형의 창업 생태계에서 여러 통계에서 나타난 증장년 창업기업의 높은 창업률과 법인기업 설립 비율, 높은 생존율은 창업지원 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3.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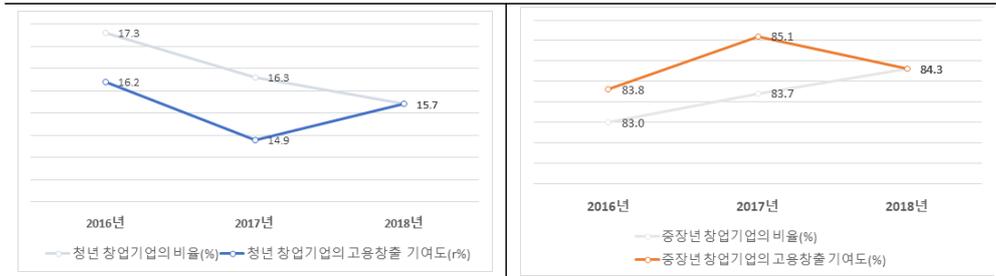
#### 3.1 고용창출 성과

문재인 정부에서 창업지원 정책으로 발표된 2017년 11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중소벤처기업부)과 2018년 5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살펴보면 창업 활성화의 주된 목적이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의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창업기업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창업 활성화 정책은 국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조덕희, 2014).

<표 3-9> 연도별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비율 및 고용창출 기여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	17.3	16.3	15.7
청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16.2	14.9	15.7
중장년 창업기업의 비율(%)	83.0	83.7	84.3
중장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83.8	85.1	84.3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그림 3-3〉 연도별 청년 창업기업 비율 및 청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추이      〈그림 3-4〉 연도별 중장년 창업기업 비율 및 중장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기여도 추이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창업기업 전체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청년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보다 고용창출 성과에 기여하는 비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장년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에서 중장년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고용창출 성과에서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이것은 <그림 3-3>과 <그림 3-4>에서 그 추세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과 고용창출 비율이 일치하는데 이것은 2017년과 2018년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는 창업진흥원의 2018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실적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기업 중 대표자의 연령대별로 40대(4.6명), 50대(4.5명), 30대(4.2명) 순으로 고용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업력별 창업기업 인력구성

구분		전체 종사자 수		
		2016년	2017년	2018년
업력	1년	2.4	2.5	2.8
	2년	2.6	2.8	3.0
	3년	2.5	3.5	3.2
	4년	2.6	3.8	3.2
	5년	3.0	3.6	3.5
	6년	2.6	3.9	3.9
	7년	2.9	4.4	4.1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앞에서 대표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유지 성과와 관련하여 <표 3-10>를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업력이 길어질수록 종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업력이 길어질수록 고용인원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창업 수요가 높은 중장년의 창업활성화 정책은 청년의 창업 활성화 정책보다 고용 창출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3.2. 재무적 성과

<표 3-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대표자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인 창업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평균 8)당기 순이익이 대부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액과 당기 순이익의 모든 수치가 평균 이하임을 알 수 있다.

8)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란 일정기간(해당기간)의 순이익을 의미하며, 이자비용이나 법인세 등 각종 비용을 모두 차감한 잔여이익의 개념으로 재무상태표 상의 이익잉여금에 속한다.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배당의 형태로 지급되거나 기업 내에 유보함으로써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다.

<표 3-11> 연도별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재무적 성과 현황(단위: 천 원)

구분	매출액			당기 순이익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평균	546,011.1	587,746.5	594,580.6	37,764.4	36,796.4	35,267.3
20대 이하	293,134.5	401,342.8	479,725.0	31,433.7	31,117.0	29,011.0
30대	420,311.2	419,766.3	482,064.0	33,926.2	30,086.8	44,650.1
40대	<b>598,427.0</b>	<b>647,459.0</b>	<b>653,688.0</b>	<b>41,379.0</b>	36,323.0	<b>37,896.0</b>
50대	<b>576,668.0</b>	<b>616,161.0</b>	584,635.0	35,978.0	<b>44,148.0</b>	<b>37,048.0</b>
60대 이상	523,832.0	578,522.0	603,610.0	24,153.5	30,346.0	34,0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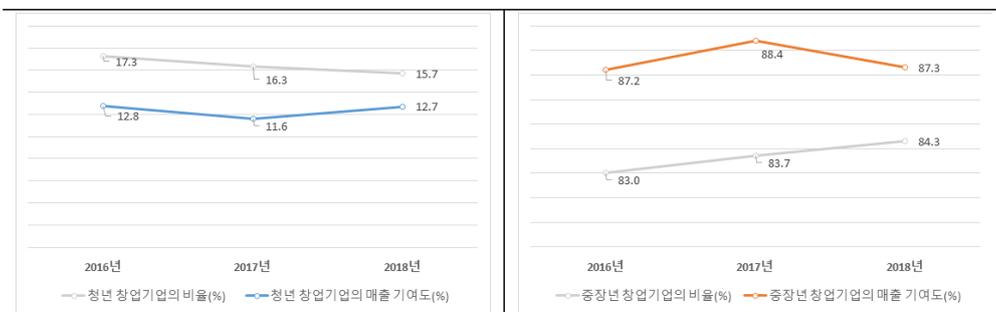
주 :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는 음영과 두꺼운 글자체로 구분함

<표 3-12> 연도별 대표자 연령에 따른 창업기업 비율 및 매출 기여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	17.3	16.3	15.7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12.8	11.6	12.7
중장년 창업기업의 비율(%)	83.0	83.7	84.3
중장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87.2	88.4	87.3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그림 3-5> 연도별 청년 창업기업 비율 및 청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추이

<그림 3-6> 연도별 중장년 창업기업 비율 및 중장년 창업기업의 매출 기여도 추이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표 3-12>를 <그림 3-5> 및 <그림 3-6>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 추세가 명확하게 차이난다. 2016~2018년 3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창업기업 중 청년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청년 창업기업이 전체 매출성과에 기여하는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중장년 창업기업이 매출 성과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청년 창업기업보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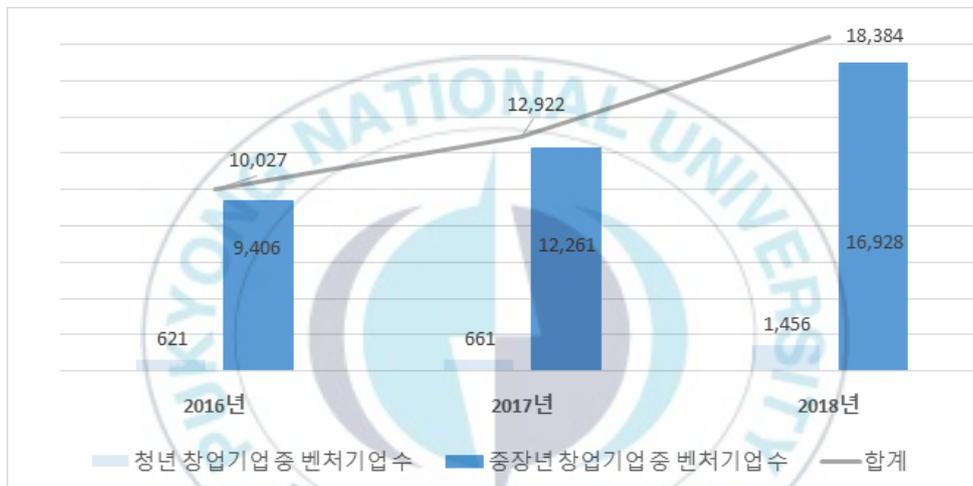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므로, 매출이 높으면 이익이 남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재무적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전략적으로 택하여 희소한 창업 자원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3. 혁신형 기업 매출 성과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인력·수출·창업 등 분야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창업지원 사업 신청시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등의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가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집중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선택과 집중’ 및 ‘경쟁원리’에 따라 보다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자원배분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하려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

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① 벤처투자기업, ② 연구개발기업, ③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창업의 성공한 결과로써의 기업이 보다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연도별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벤처기업 수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표 3-13> 연도별 벤처기업 중 대표자의 연령에 따른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벤처기업 중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	6.2	5.1	7.9
벤처기업 중 중장년 창업기업의 비율(%)	93.8	94.8	92.1

주 : 창업진흥원, 2016~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함

해외 국가의 창업 유형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기술기반의 창업 성장 속도는 더딘 편이다. <그림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 최초로 연간 벤처기업 1만 개사를 인증한 것에 이어 2018년에는 18,384개사를 기록하는 등 매년 벤처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기업 중 벤처기업 수는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표 3-13>와 같이 비율로 보면 청년 창업기업 중 벤처기업의 비중은 2016년 6.2%에서 2017년 5.1%로 낮아졌다가 2018년에는 7.9%로 다소 높아졌으나 2016~2018년 3개년 간의 벤처기업 중 중장년 창업기업의 비율을 보면 평균 90%가 넘기 때문에 청년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수와의 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청년 창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고, 저부가가치 생계형 창업에 대한 의향이 높아 기술혁신형 창업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등 혁신형 기업 평가시, 아이템과 관련된 대표자의 경력 및 지식 정도, 보유 기술의 가치를 검토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기업에 비하여 관련 경력이 풍부하고, 업무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일정 부문 진행되어 있는 중장년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혁신형 기업 인증이 가지는 의미가 성공한 기업이 아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의 지원 대상임을 보증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중장년 창업기업에서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형 기업의 배출 성과가 높은 것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중장년 창업기업에 청년 창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및 시사점

이미 창업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일자리 대책중 하나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창업 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에는 일자리 즉, 고용 창출 실적이 가장 우선시 될 수 밖에 없다. 앞장에서 살펴본 여러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통해서 중장년 창업기업이 생존율을 비롯하여 고용창출 성과가 청년 창업기업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기반 하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장년 창업 지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일자리 창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중점 창업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통계자료에 나타난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면 그러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력 1년 차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19.8%로 나타났지만 7년 차에는 9.2%로 급격히 감소하여 업력이 길어질수록 살아남는 청년 창업기업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대표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업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업력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 성과 측면에서 중장년 창업기업이 고용창출 성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에 비해 높았다. 또한, 재무적 성과에서도 대표자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인 창업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평균 당기순이익에서 평균액을 대부분 상회하고 있으나 청년 창업기업은 모두 평균 이하였다. 그리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재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장년 창업기업은 법인

기업 설립 비율이 비교적 높고, 혁신형 기업 배출 실적이 청년 창업기업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벤처기업과 같은 혁신형 기업의 배출 성과가 높은 것은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청년 창업기업보다 중장년 창업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중장년 창업의 현황과 창업 성과 분석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실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중장년 창업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장년 창업기업이 전체 고용 창출성가에 기여하는 비중이 청년에 비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보다 중장년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전략이 성과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창업진흥원의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창업기업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창업기업 당 고용인원이 2013년 3.8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장년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준다면 중장년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는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중장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다산다사형의 창업 생태계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의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창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중장년만을 위한 특화된 창업지원 사업이 부족하다. 중장년의 창업 수요는 인구구조의 변화, 퇴직자의 증가 등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년 창업기업의 창업지원 사업의 수혜률은 청년 창업기업에 비해 낮고, 지원사업의 종류나 범위도 청년 창업지원 정책에 비해 적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9)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99%)는 노년의 삶을 위해 노후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매우+그렇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절반 정도인 47%로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이 많다. 향후 활성화가 필요한 노후준비 정책 분야로는 ‘은퇴 이후 일자리 확충’이 45%로 가장 많았는데 정부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장년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장년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창업 활성화 정책의 지원 대상자가 청년 중심에서 중장년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청년을 길러내고, 창업하도록 유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는 고용 창출 부문에 있어서 미흡하였음을 앞장에서 확인하였다. 고용 창출 성과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에서 기인하며 생존율은 대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업력이 높아질수록 종사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테스밸리와 같은 시기에서의 정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을 운영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장년과 청년의 협업 지원 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중장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을 수행하거나 청년 창업기업의 일자리에 중장년을 매칭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와 트렌

드 변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는 정부 주도의 중장년과 청년의 협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중물처럼 청년과 중장년 모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9)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킹 기능을 가진 상시 플랫폼을 지역 거점별로 설치하고, 온라인에서는 스타트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중장년을 연계해 주어 청년의 아이디어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중장년의 노하우의 결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2019년까지 운영되었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처럼 청년과 중장년의 매칭을 지원하고,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지만 청년과 중장년의 팀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어 사업운영 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애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판로 확대를 위한 인맥을 연결 해줄 수 있는 중장년을 필요로 하는 청년 창업기업과 제 2의 인생, 노후 준비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중장년의 접점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협업의 새로운 모델을 많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셋째, 창업 실패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정책의 동반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의 장점 중 하나는 실패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중장년에 비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년의 창업 실패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창업자 한명이 아닌 가정 전체의 경제적 곤란을 야기하는 등 실패의 파장이 넓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감수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장년의 창업 활성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보장과 같은 복지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창업을 위한 견적을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고, 퇴직자·고령자의 도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

---

9)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에 소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해주는 지원으로 대표적으로 입주공간 지원이 있음

장년의 창업 활성화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정년 없는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중장년의 창업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겸직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전자의 C랩, SK텔레콤의 Start@와 같이 조직의 혁신성장을 위하여 사내벤처를 전폭적으로 육성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 조직에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덧대어지기 때문에 비밀리에 창업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 창업 활성화 및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서로 창업을 권장하고, 창업으로의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 확산을 통하여 중장년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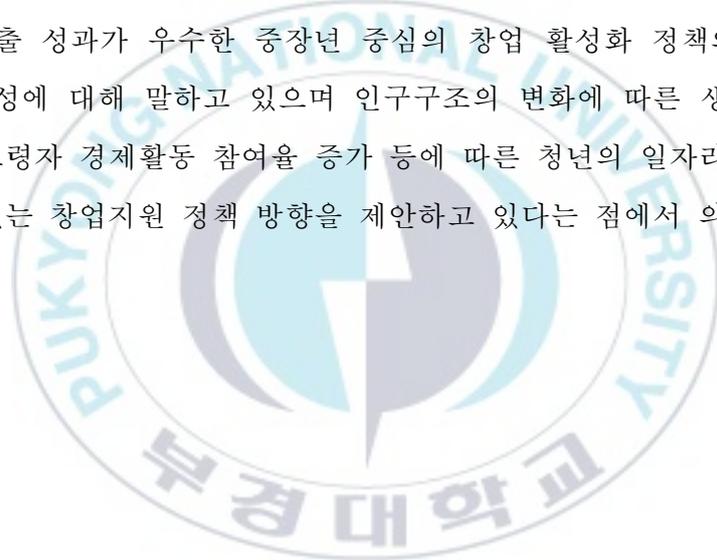
본 연구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분석할 수 있는 항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기업 이력·성과조사’에는 대표자의 연령별 데이터가 없어 창업지원 사업을 수혜 받은 중장년 창업기업의 성과만을 별도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청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기업의 것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개괄적으로나마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장년 창업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아울러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통한 중장년 창업지원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하다. 중장년 창업기업의 특·장점을 분석하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지원 모델을 연구하여 공유하면 중장년 창업기업의 경쟁력이 높

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별 중장년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장기간에 걸친 기업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의 구성과 교육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장년 전용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창업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무릅쓰고 창업에 도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써의 창업활성화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고용창출 성과가 우수한 중장년 중심의 창업 활성화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에 따른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지원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 문헌

- 안승구(2016),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가열외 2명(2009), “중장년층의 전직지원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고혁진(2019). 수요기반의 창업지원 사업 설계 연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5, 667-685
- 곽규태, 천영준, 최세경(2018), 정부 정책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3(2), 2018.5, 83-103
- 양현봉·한창용(2018),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산업연구원
- 조덕희(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성과 및 과제」, 산업연구원
- 양현봉 외(2013), 「창업지원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덕희(2014),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성과 및 과제」, 연구보고서 2014-732, 산업연구원.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지원기업 이력·성과 조사」, 각 연도.
-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 각 연도.
- 통계청,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각 연도.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보도자료
- OECD, 2017 기업가정신 보고서, 동향리포트 17년 13호
- 2019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심층연구 보고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관계부처 합동(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17-7-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일자리위원회(019), 「2017~2019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활동보고서」



## 감사의 글

이 석사 학위 프로젝트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문과 학술자료, 연구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이 배웠고, 저의 부족한 점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배려와 격려로 지도하여 주신 지도교수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여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